

##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백총기 수석연구위원 (cgbaek@bnkfg.com)  
김민준 책임연구위원 (kmj9612@bnkfg.com)

금년들어 달러화는 약세, 유로화·엔화·위안화는 강세를 시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달러화가 현수준에서 등락하고 유로화는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엔화 및 위안화는 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경기의 미약한 회복세, 위안화 약세 등을 감안할 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제정세의 변화, 환율조작국 이슈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높은 변동성 국면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동남권 기업의 경우 환율상승 효과로 수출개선이 기대되나 환율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기업 스스로 환율 리터러시(literacy)를 높여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이와함께 지자체 등 관련기관은 환율관련 정보, 교육, 컨설팅 등을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 오랜기간 환율변동에 따른 성공과 실패경험이 축적된 CEO들간의 경험공유가 가능하도록 기회의 장(場)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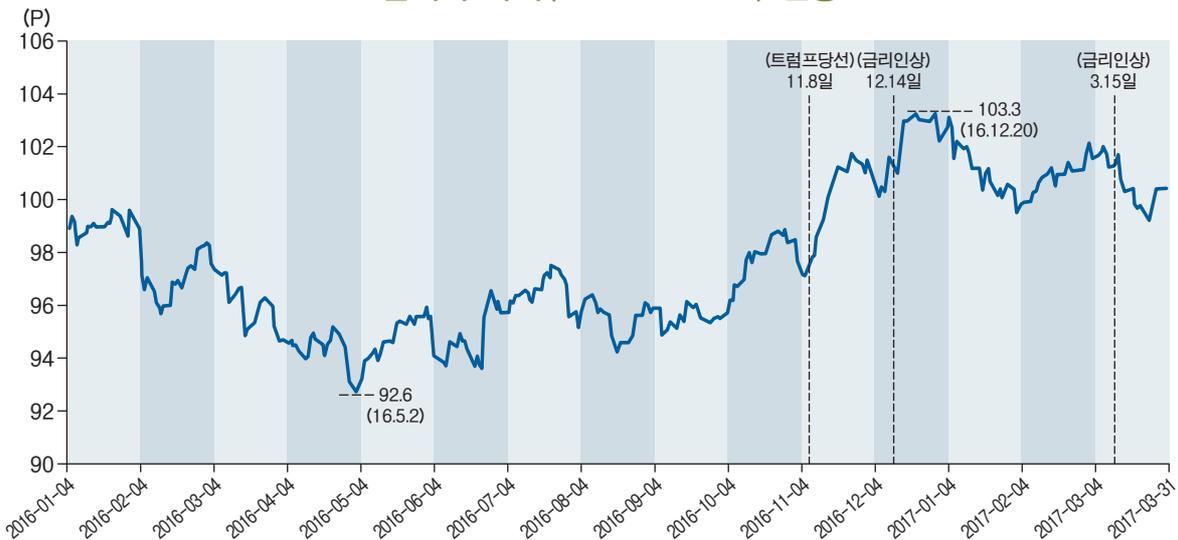
## 금년들어 달러화 가치 상승세 제동

지난해 하반기중 달러화 가치(Dollar Index 기준)는 미국경기 개선<sup>1)</sup>, 트럼프 대통령 당선(11.8일) 및 기준금리 추가인상(12.14일) 등이 맞물리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시현하였다. 특히 트럼프 당선이후 연말까지 절상 폭은 4.5%(97.781p → 102.210p)에 달할 만큼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7년 들어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되었다. 트럼프 정부 출범(1.20일) 효과 등에 따른 일시적 상승을 제외하면 기준금리 추가인상(3.15일)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이어지며 금년 1/4분기중 1.8%(102.21p → 100.35p) 절하되었다.

이와같은 달러화 약세는 미국 신정부 1호 입법안건인 트럼프케어<sup>2)</sup> 철회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미국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딘데 주로 기인한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지난달 발표에서 금년 1/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1.3%(연율 기준)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2.1~2.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달러화 가치(Dollar Index) 변동



자료 : Bloomberg

1) 2016년 미국 경제성장률(연율기준) : 1.1%(상반기) → 2.7%(하반기)

2) 미국건강보험법(AHCA)이라고도 불리며 기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ACA)의 대체법안

## 유로화 · 엔화 · 위안화는 강세로 전환

지난해말 달러/유로 환율이 1.0388달러로 절하(12.20일)되면서 유로화는 달러화와  
의 패리티<sup>3)</sup>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하지만 금년 1/4분기중에는 유럽의 경기개선,  
경상수지 흑자 및 미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1.3% 절상<sup>4)</sup>된 것으로 나타났다.

엔화도 금년 1/4분기중 강세로 전환하며 4.8% 절상<sup>5)</sup>되었다. 일본중앙은행(BOJ)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되고 일본경기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음에도 불구  
하고 트럼프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데 주로 기인한다.

위안화의 경우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에는 달러화대비 6.9640위안을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7위안 재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약세흐름을 보였  
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자본유출 억제조치 강화 및 중국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금년  
1/4분기중에는 소폭 강세 전환하며 달러당 6.8~6.9위안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 : Bloomberg

3) 유로화 패리티는 1유로=1달러를 의미

4) 유로당 달러가치 1.0517달러(2016.12.30일) → 1.0652달러(2017.3.31일)

5) 달러당 엔화가치 116.96엔(2016.12.30일) → 111.39엔(2017.3.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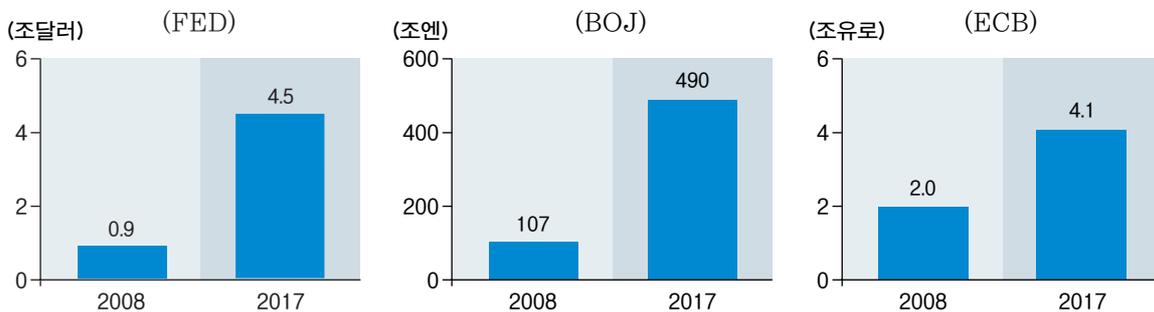
## 하반기, 달러화는 현수준에서 횡보할 가능성

금년 하반기중 달러화는 강세 및 약세요인이 혼재하면서 현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세요인으로 미국의 경기 개선속도가 예상보다 느린 것이 우선 지목되고 있다. 1/4분기 부진했던 미국경제는 트럼프 재정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면서 개선 기대가 약화되고 있다. IMF는 글로벌 금융보고서(4.19일)에서 미국 기업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금리인상 속도조절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약세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3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기존 공동성명 내용중 하나인 보호무역 반대 문구의 삭제를 요청하는 등 자국의 무역적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도 트럼프의 달러약세 선호 발언 등을 근거로 기존의 달러강세 전망을 최근(4.18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연준(Fed) 보유자산의 연내 축소 가능성<sup>6)</sup> 및 미국 금리인상 등은 강세요인으로 지목된다. 미연준의 자산규모는 2008년 9천억달러에서 2017년 4조 5천억달러로 5배나 늘어났다. 같은기간 BOJ가 4.6배, ECB가 2.1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축소압력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 주요국 중앙은행 자산 규모



자료 : Bloomberg

6)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장(2017.4.5일)은 미 연준이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보유자산을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

## 유로화는 강세, 엔화 및 위안화는 약세 전망

유로화는 유럽경기 개선 및 브렉시트 리스크 선반영<sup>7)</sup> 등을 감안할 때 약세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즈(2017.4.6일)에 따르면 바클레이즈(Barclays), 시티은행(Citi),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 등은 유로화 방향성에 대한 전망을 기존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했다고 발표하였다.

제이피모건(JP Morgan), 크레딧스위스(Credit Suisse), 코메르츠뱅크(Commerzbank) 등 주요 IB들도 4/4분기 유로화대비 달러가치를 1.10~1.15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정책 지속, 미국 금리인상 등은 유로화 강세의 제약요인이다.

향후 유로화 환율과 관련한 최대변수로는 정치리스크가 주목된다. 프랑스 대선(5월)에서 극우정당의 집권 가능성, 독일 총선(9월)에서 메르켈 총리의 연임여부 등이 유로화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 달러/유로 환율 전망

구분	2017.1Q	2017.4Q
JPMorgan	1.07달러	1.15달러
Credit Suisse		1.11달러
Commerzbank		1.10달러
SMBC		1.02달러

자료 : Bloomberg

### 유럽 주요 정치일정 및 이슈

구분	내용	주요 이슈
5월	(7일) 프랑스 대선(결선)	• 반EU를 주장하는 극우성향 르펜후보의 당선여부
6월	(11일) 프랑스 총선	• 르펜이 이끄는 국민전선(FN)의 하원 장악여부
7월	(7~8일) G20 독일개최	• 트럼프 및 주요국 수장 발언
9월	(24일) 독일 총선	• 메르켈 4선 여부 • 총선일정으로 유로 당면과제 논의 지연
12월	(11~14일) WTO	• 트럼프의 WTO 역할축소, Rule 변경 등 강경발언 여부

자료 : Open Europe

7) 유로화대비 달러 환율은 1,1385달러(2016.6.23일)에서 1,0388달러(2016.12.20일)로 하락하면서 유로화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약 6개월간 8.8% 절하

엔화는 금년 하반기중 약세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들어 엔화가치 상승을 유발했던 미국경기 부진,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시리아 공습 등 주요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경기회복세도 더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유로지역의 대선, 브렉시트 협상 등 정치 리스크가 예상보다 크게 부각될 경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면서 절상압력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IB들도 대체로 달러화대비 엔화가치가 1/4분기 113.6엔에서 4/4분기에는 120엔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이피모건(JP Morgan)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엔화가 강세를 시현하며 달러당 105엔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안화는 구조조정 지속, 내수둔화에 따른 해외투자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약세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IB들도 금년 4/4분기에는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며 약세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중국의 주요 리스크로 지적되는 기업부채, 부동산버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은 위안화 약세 폭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엔/달러 환율 전망

글로벌 IB	2017.1Q	2017.4Q
Morgan Stanley	113.6엔	120엔
Ebury		120엔
PNC Financial		118엔
JPMorgan		105엔

위안/달러 환율 전망

글로벌 IB	2017.1Q	2017.4Q
Barclays	6.89위안	7.25위안
Morgan Stanley		7.10위안
JPMorgan		7.05위안
MPS Capital		6.75위안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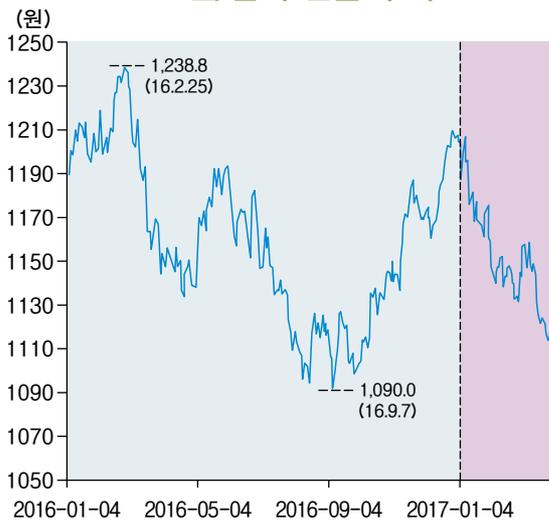
## 원/달러 환율 상승할 전망

금년들어 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 및 외국인 자금 국내유입<sup>8)</sup> 등으로 원화는 강세를 시현하였다. 연초 원/달러 환율은 1,208원(2017.1.2일)으로 시작했으나 1/4분기중 1,112원(2017.3.27일)까지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중에는 미약한 경기 회복세, 북핵 리스크 등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위안화 약세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압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IB들 역시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분기 1,142원에서 4/4분기 1,170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1,22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원화 강세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상승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트럼프 정부의 정책추진 동력 약화 가능성 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원/달러 환율 전망

글로벌 IB	1Q	4Q
Morgan Stanley	1,153원	1,220원
JPMorgan		1,185원
Barclays		1,180원
MUFG		1,105원

8) 2017년 1/4분기 채권 순유입 규모는 82억 7천만달러이며 이는 금융위기 이후 분기기준 최대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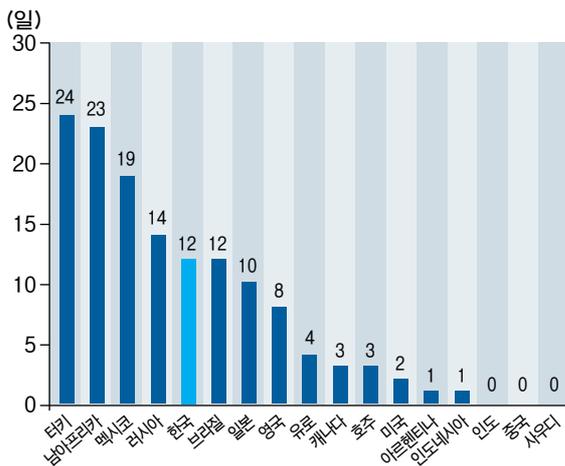
## 높은 변동성 국면은 이어질 가능성

원/달러 환율의 경우 일일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금년중 전일 증가 대비 변동률이 1% 이상인 거래일이 총 12일로 나타나 터키(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23일), 멕시코(19일), 러시아(14일) 등 상당한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불안정한 환율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환율조작국 이슈 등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변동성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어느때보다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환율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 재무부가 「2017년 상반기 환율보고서(2017.4.15일)」를 발표한 이후 환율조작국 관련 불확실성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하반기중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시각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는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3개 중 2개가 여전히 해당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 한미 무역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 데 주로 기인한다.

G20 국가별 환율변동성 비교



주 : 1) 전일 증가대비 변동률이 1%이상인 거래일  
2) 2017.1.2~4.14일 기준(비거래일 제외)

자료 : Bloomberg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억달러,%)

관찰 대상국	지정요건		
	A	B	C
중 국	3,470	1.8	△3.9
일 본	689	3.8	0.0
한 국	277	7.0	△0.5
대 만	133	13.4	1.8
독 일	649	8.3	-
스위스	137	10.7	10.0

주 : 1) A. 對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이상,  
B.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 3% 이상,  
C. GDP대비 2% 초과 외환순매수

자료 : Bloomberg

## 동남권 기업의 직간접 수출개선 기대, 환율 리터러시(literacy) 높이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

동남권 기업의 경우 환율상승 효과로 수출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2015년 이후 동남권의 최대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한 미국<sup>9)</sup>으로의 직접수출 증가가 기대되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동남권 경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높은 경제연관성으로 원화와 동조화를 보이는 위안화의 약세도 동남권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중국의 대(對)미국 수출 확대는 동남권의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을 증가시키는 간접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2015.5월)에 따르면 미국시장에서 중국은 일본과 달리 한국과의 수출경합도(0.346)<sup>10)</sup>가 높지 않다. 특히 동남권의 대(對)미국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중국과의 수출경합도가 0.223, 기계류는 0.346, 철강은 0.279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으로 미국 보호무역 기조, G2간 통상마찰 및 중국의 사드배치 문제로 인한 반한감정 등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에는 수출 개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주 : 1) 120분단위 거래가격기준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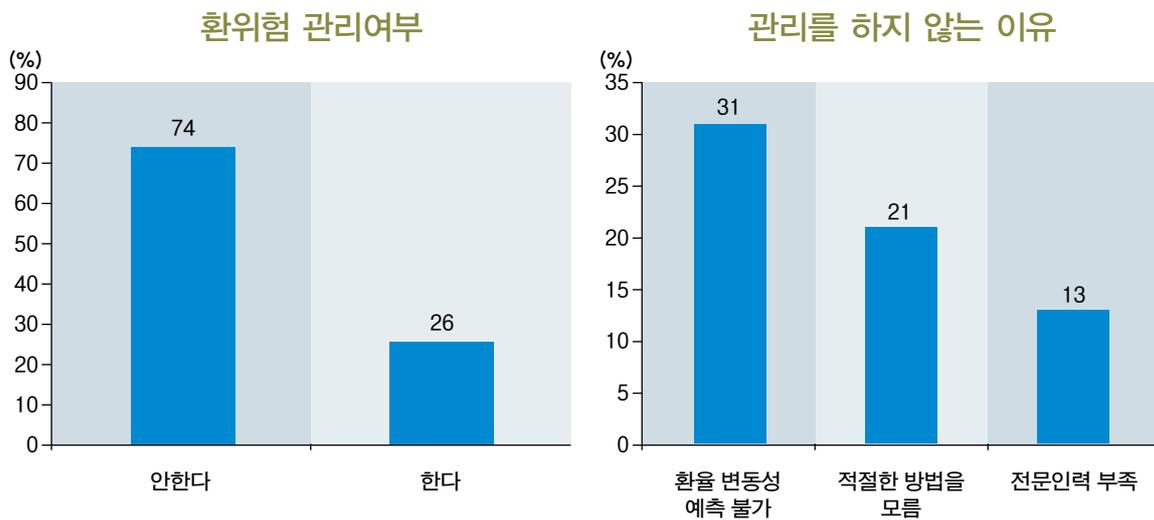
9) 2016년 기준 동남권의 대미국 수출비중은 14.8%에 달하고 있음

10) 수출경합도 지수는 특정시장에서 양국간의 수출경쟁정도를 보여줌. 1에 가까울수록 경쟁적 상태에 있음을 의미

한편 수출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의 수익성은 원/달러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 크게 확대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높은 환율 변동성으로 네고시점 예측 및 환헤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자 및 직원들이 환율 리터러시(환율흐름의 파악능력)를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남권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환율전문가 영입이나 정보획득 등으로 환율 변동성에 대응해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환위험 관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자체 등 관련기관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환율관련 정보, 교육, 컨설팅 등을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환율정보 제공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문가의 일방적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들어 오랜 기간 환율변동에 따른 성공과 실패경험이 축적된 상당수의 기업 CEO간 경험공유가 가능하도록 기회의 장(場)을 제공한다면 기업 스스로 환율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자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2017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2017.4.10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한일과 한중 수출경합 비교,” 2015.5.8

한국은행, “2017년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7.3.14

\_\_\_\_\_, “최근 중국의 자본유출 압력 완화에 대한 홍콩 IB들의 평가,” 2017.4.11

Bloomberg News, “Markets Start to Ponder the \$13 Trillion Gorilla in the Room,” 2017.4.19

Financial Times, “The ECB risks wrong turnings as it exit emergency measures,” 2017.3.23

\_\_\_\_\_, “Three puzzles of the financial markets’ tug of war,” 2017.3.28

\_\_\_\_\_, “China faces a tough fight to escape its debt trap,” 2017.4.11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2017.4.14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5

01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우수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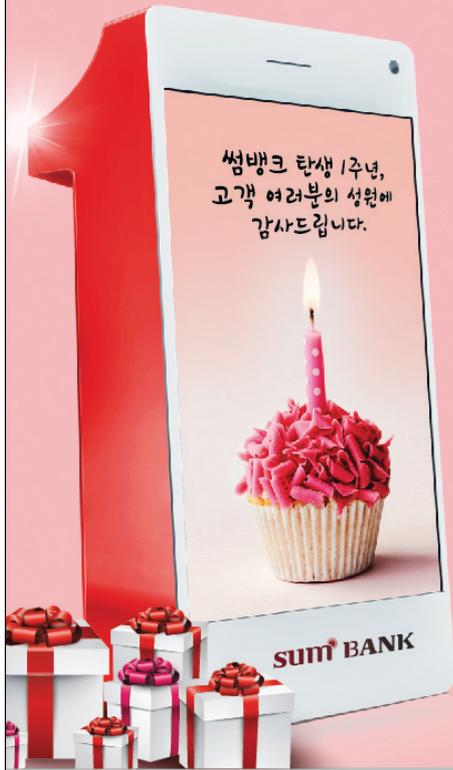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 썸(SUM) 1년째, 갈수록 새롭다



## 4월, 썸뱅크가 더욱 새롭게 태어납니다

### 하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매력적인 상품과 서비스가 더해져 썸뱅크 플러스

### 둘, 환율 간편하고 편리해진 앱을 즐겨보세요

간편해진 이용과 새로워진 디자인으로 썸(SUM)이라는 재미 플러스

### 셋, 썸(SUM)할 수 없었던 그때, 이제 썸을 타보세요

최소가입연령 확대로 썸(SUM) 할 사람 플러스

# SUM BANK

by **BNK** 금융그룹

#### ●은행 오지 않고 계좌를 개설

-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말 공휴일에도
- 영상통화나 계좌송금으로 본인 인증을 완료하다

#### ●지문만으로 로그인

- 복잡한 입력절차 없이 간편하게 안전하게 로그인

#### ●엘포인트 적립이 쉬워지고 이자까지 플러스

- 스마트폰으로 적립하니 놓치던 포인트도 차곡차곡
- 지동으로 저축되고 이자까지 플러스

#### ●환전 은행 오지 않아도 90% 우대

- 신청은 스마트폰만으로
- 환율 우대는 최고 90%(USD, JPY, EUR)

#### ●스마트폰만으로 ATM에서 현금 찾고 주문에 결제까지

- 카드 없어도 스마트폰만으로 현금 찾는다
- 스마트폰만으로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주문하고 결제까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썸뱅크 홈페이지(www.sumbank.co.kr)를 참조하거나 썸뱅크 고객센터(800-05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BNK BNK금융지주

제2017-04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성세환

편집인 정민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17년 4월 27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